

다임러, 도요타와 수소연료전지 합작

FT, 전기자동차용 공동개발 검토 ... 개발비용 분담으로 수익 극대화

독일 자동차기업 다임러(Daimler)와 일본 도요타(Toyota)가 전기자동차(EV)용 수소연료전지 공동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타임스(FT) 독일판에 따르면, 다임러 소식통은 합작기업을 통해 “개발비용을 분담하면 이익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FT는 수소연료전지 공동개발 계획이 성사되면 양사의 첫 협력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임러는 1994년 이후 수소연료전지 기술에 10억유로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전기자동차 제조기업 테슬라(Tesla)는 5월20일 도요타가 테슬라의 주식을 매입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 다임러 역시 테슬라의 지분을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전기자동차용 수소연료전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5/26>